

【논문】

## 순수이성비판에서 일차적 현상과 이차적 현상의 구별 문제

강순전

【주제분류】 독일근대철학, 인식론

【주요어】 칸트, 직관, 범주, 개념, 현상

【요약문】 우리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아직 범주의 매개 없이 시공간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직관을 일차적 현상, 범주와 매개된 직관을 소위 이차적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 및 이차적 현상은 직관과 범주 내지 개념의 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데, 이에 대한 칸트의 언급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로 상반된 해석이 제기된다. 그 중 하나는 개념과 매개되지 않은 직관의 현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직관은 항상 이미 개념과 매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전자를 나는 직관에 관한 비개념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해석으로서 로스(P. Rohs)와 감각자료 이론을 소개한다. 후자를 나는 직관에 관한 개념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셀라스(W. Sellars)와 맥다웰(J. McDowell)의 해석을 포함시킨다. 비개념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일차적 현상이 가능하며, 일차적 현상은 이차적 현상의 토대가 된다. 개념주의적 해석은 이러한 해석을 소여의 신화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직 이차적 현상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본 논문에서 이들의 상세한 논증을 검토한 뒤, 양자의 주장을 통해 각각 칸트가 추구했던 전체 구도에서 어떤 측면이 손상을 입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을 견지하는 것이 칸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I. 문제 설정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직관의 형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직관을 **일차적** 현상이라고 칭하고, 그러한 직관에 범주가 결합되어 **이차적** 현상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칸트 자신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히 아직 범주와 결합되지 않은 “경험적 직관의 무규정적 대상”인 “현상”<sup>1)</sup>과 “범주의 통일에 따른 대상”으로서의 “현상”(A248f.)을 구별하고 있으며, 발생론적으로 전자는 일차적 현상, 후자는 이차적 현상이라고 칭해질 수 있다. 전자의 과정을 통해 인식의 재료가 주어지고 후자의 과정을 통해 거기에 사고가 덧붙여져 인식이 성립하는 것은 자명하게 보인다. 인식은 일차적 현상으로서의 직관에 범주가 결합되어 일어나는 것이니 말이다. 인식에 관한 칸트의 설명에 있어서 이러한 일차적 및 이차적 현상의 구별 혹은 아직 개념과 매개되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직관과 그것을 사고하는 범주의 구별은 필수적인 전제인 것 같이 보인다. 또한 이러한 구별이 전제되어야 직관과 범주를 인식의 두 원천으로서 상정하고 양자의 결합을 통해 인식을 설명하려는 칸트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정작 양자의 결합 가능성을 증명하는 범주의 연역을 위시한 도처에서 칸트의 서술은 이러한 구별을 매우 불분명하게 한다.

칸트는 **한편으로** “대상들은 오성의 기능과 반드시 관계 맺지 않고도 [...] 현상할 수 있다”(A89/B122)고 말한다. 말하자면 범주에 의해 아직 규정되

---

1)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1998, A20/B34 (이하 본문에 쪽수만 표기) 용어 표현에서 백종현의 번역(『순수이성비판』, 아카넷, 2013)을 참조하였으나 *Verstand*를 오성으로 번역한다. *Verstand*는 라틴어 “*intellectus*” 혹은 “*intelligentia*”의 번역이므로 지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의상 보다 적합하나, 헤겔철학의 용어들과의 호환성을 위해 오성으로 번역한다. 헤겔은 주관정신론에서 이론적 정신을 “*Intelligenz*”라고 칭하고 그것의 기능을 인식이라고 한다. (G.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I, Theorie Werkausgabe, Werke in zwanzig Bänden, Bd. 10*, Frankfurt a. M., 1969ff., § 445, 240f.) 헤겔이 말하는 “*Intelligenz*”는 의미상 “지성”이라고 번역되어야만 하며, “예지”라고 번역될 경우 칸트의 동일 용어가 갖는 의미 때문에 큰 혼동이 발생한다. 이와 구별하여 *Verstand*는 오성이라고 번역하는데, 헤겔철학에서는 *Verstand*가 의미상 지성이 아닌 오성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욱 적합하기도 하다.

지 않은 “경험적 직관의 무규정적인 대상”으로서 “현상”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A20/B34) 칸트는 이러한 직관을 “마음 안에서 그 자체로는 흠어져 날날으로 마주쳐지는” “지각”과 같은 것으로 서술한다. (A120) 그는 **다른 한편**으로 “범주들의 통일에 의해 대상으로 사고되는 한”에서만 “현상”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A248)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직관을 포함한 모든 현상은 사실은 “범주에 기초하고 있다”. (A125) 또한 앞의 서술과는 반대로 “내 마음에서 마주치지만 떼어져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한 **하나의** 의식에 귀속되지 않은 채로 있는” 지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A122) 이러한 상반된 서술은 개념의 매개 없는 직접적 현상으로서 직관이 가능한가 혹은 그러한 직관은 불가능하고 본래 직관은 개념과 매개된 상태로만 현상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칸트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매성은 직관과 범주의 선후관계 내지 우선성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칸트는 “직관을 위한 잡다가 오성의 종합작용에 **앞서**, 그러니까 그 종합작용에 독립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안된다”(B145)고 말하면서, 거꾸로 범주 혹은 “통각”이 “모든 감성적 직관에 **앞서** 객관 일반에 관여한다”(B154)고 상반된 서술을 한다. (강조는 모두 나의 것) 또한 “직관”을 “모든 사고에 **앞서** 주어질 수 있는 표상”(B132)이라고 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직관의 통일”을 통해 하나의 “대상이 주어지는데” 그러한 “직관의 통일은 항상 [...] 통각의 통일과의 관계맺음을 **이미** 함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B145 주) (강조는 모두 나의 것) 그밖에도 칸트는 “직관의 잡다의 종합적 통일”이 “통각의 동일성의 근거”라고 하면서 “오성은” 이렇게 주어진 “직관을 결합하고 정리할 뿐”(B145)이라고 직관의 우선성을 말하다가도, “모든 현상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바꿔 말해 포착되는 것”도 “통각의 통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통각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A122) “대상을” 범주를 통해 “규정함이 없이 감각이 대상 일반에 적용될 때 지각이라고 일컬어진다”(A374)는 언급은 『형이상학서설』에서도 경험판단과 뚜렷이 대조되는 지각판단으로서 주제화된다. 거기서 칸트는 대상을 범주에서 규정하는 경험판단과는 달리 “순수오성개념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지각들의” 모종의 “연결만을 필요로” 하는 것

으로서 지각판단을 규정한다.<sup>2)</sup> 하지만 그는 『순수이성비판』의 재판에서 “잡다의 종합의 통일”과 “결합”은 “모든 포착의 종합의 조건으로서 [...] 직관과 함께 이미 동시에 주어진다”고 말하면서, 이 “종합”이 “지각”을 “가능케” 하는데 “모든 종합은 범주들 아래에 종속한다”고 위와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다. (B161) 또한 “경험적 직관의 통일은 [...] 범주가 직관의 잡다에 지정하는 것”(B144f.)이며 “포착의 종합, 즉 지각은 시종일관 이 범주에 따라야 한다”(B162)면서 일차적 현상으로서의 직관 내지 지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언급들을 쏟아낸다. 모종의 결합이 오성에 앞서 이루어진다는 『형이상학서설』에서의 지각판단에 관한 주장도 “결합은 대상 안에 놓여” 있어서 “오성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성이 수행한 것”(B134f.)이라는 언급을 통해 그 실효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완전히 상이한 표상들의 원천”(A271/B327)에 기초하여 “감성”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을 구분하고 “양자의 각각의 몫을 뒤섞지” 않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구별”하려는(B75f./A51f.) 칸트의 시도는 관철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감성적 “직관”과 사고하는 “오성”은 “어느 것도 다른 것에 우선할 수 없다”(B75/A51)는 주장은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 “내감을 규정”하기 때문에 “통각”은 그 아래 직관의 잡다가 “종속돼야 하는 조건”이며(B150), “공간과 시간”의 “통일조차도” 시공간의 순수직관의 잡다가 “통각”에 “관계맺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력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A107)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들은 시공간이 “직관의 형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형식적 직관”으로서 그 자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B161주 참조) 오성이 애초의 경계를 넘어서 감성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것을 가능케 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일차적 현상과 이차적 현상의 구별, 개념의 매개 없는 직접적 현상으로서의 직관이 가능한가 아니면 직관은 이미 개념과 매개된 형태로만 현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별은 칸트에게서 매우 애매하게 서술된다. 서로

2) I, Kant,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AA. Berlin 1900ff., Bd.4, 298.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이러한 서술들의 긴 목록은 이러한 서술들이 칸트의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착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구별하는 문제가 하나의 체계적인 문제임을 알려준다. 이 문제와 관련한 서술의 애매성은 많은 칸트 해석자들의 상반된 해석들을 자극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개념의 매개 없이 직관이 직접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로스(P. Rohs)와 감각자료이론(sense-data theory)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직접적 소여로서의 직관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항상 개념과 매개되어 현상할 뿐이라는 셀라스(W. Sellars)와 맥다웰(McDowell)의 주장을 살펴본다. 끝으로 양자의 주장을 통해 각각 칸트가 추구했던 전체 구도에서 어떤 측면이 손상을 입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을 견지하는 것이 칸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인지를 결론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일차적 현상: 범주의 매개 없는 직접적 현상

일차적 현상으로서 직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직관이 범주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의식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즉 현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문제제기에서 제시된 것처럼 범주에 의해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경험적 직관”이 “현상”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A20/B34), 이러한 직관은 “마음 안에서 그 자체로는 흩어져 날날으로 마주쳐지는” 것이어야 한다. (A120) 하지만 의식에 주어진다는 것은 **나의** 의식에 주어진다는 것이고 **나의** 의식에 현상한다는 것이다. 나의 의식이 하나의 통일된 의식인 한, 그 안에서 “마주치지만 떼어져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한 **하나의** 의식에 귀속되지 않은 채로 있는” 직관은 “불가능”하다. (A12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이튼은 일차적 현상, 즉 통일이 결여된 직관의 잡다는 “객체의 현상”이 아니라 단지 직관의 잡다의 “한갓된 맹목적인 유희”(a mere blind play)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때 “맹목적이라는”(blind)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의식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의식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3) H. J. Paton(1936), 434.

말하자면 잡다한 직관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자기의식이며, 아직 자기의식이 결여된 상태의 의식 속에서는 통일이 결여된 상태로 직관의 잡다가 현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가 강조하는 것처럼 “나는 사고한다”는 것이 나의 모든 표상에 수반할 수 밖에 없다”(B131)면, ‘나는 사고한다’는 자기의식은 개별 표상인 직관에도 수반되어야 하며, 자기의식이 수반되지 않은 의식은 생각할 수 없다.

### 1. 직관에 대한 로스의 비개념주의적 해석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로스의 시도는 보다 일관되면서도 독특하다. 범주에 독립적인 직관의 성립 가능성을 논증하기 위해 로스는 칸트의 『논리학』에서의 직관과 개념에 대한 구별에 주목한다. 칸트는 거기서 “직관”을 “개별 표상”(repraesentat. singularis), “개념”을 “보편 표상”(repraesentat. per notas communes)이라고 칭하면서, 보편 표상을 “여러 객체들에 공통적인 것에 대한 표상”이라고 규정한다.<sup>4)</sup> 로스는 이런 의미에서 개념은 여러 사물들에 공통적일 수 있는 징표를 매개로 해서만 대상에 관계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sup>5)</sup> 칸트 자신이 말하듯이 “개념은 대상과 결코 직접적으로 대상에 관계하지 못하고, 대상에 대한 어떤 다른 표상과 -그것이 직관이든 그 자체가 개념이든- 관계맺는다”. (A68/B93)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인식이 직접 대상과 관계 맺는 것은 [...] 직관이다”. (A19/B33) 로스의 핵심주장은 **직관**만이 대상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개념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개념을 통해 대상을 규정하는 인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독립적인 **직관**의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직관을 포섭함으로써 개념은 대상과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는 이러한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직관에 개념이 더해지는 판단을 독특하게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개념이 열두 가지 범주의 방식으로 직관을 규정하는 오성의 판단이다. 이것은 직관의 내용에 따라 규정의 참과

4) I. Kant, *Logik*, AA. Berlin 1900ff., Bd.9, 91.

5) P. Rohs(2001), 216 참조.

거짓이 문제되는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명시적인 판단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형식의 모든 판단에 선행하는 개별 판단(singuläres Urteil)이다. 로스는 이 판단의 주어 위치에 오는 것을 “개별 의미”(singulärer Sinn)라고 칭한다.<sup>6)</sup> 칸트는 직관을 개별 **표상**이라고 칭하고 판단의 주어를 주어 **개념**이라고 표현하는데, 로스는 이것이 직관을 개념과 엄밀히 구별하지 못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면서 직관을 “개별 의미”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가 말하는 “개별 의미”는 “비감각적인 어떤 것”(etwas Nichtsinnliches)으로서, 이와 함께 로스는 프레게의 의미(Sinn)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sup>7)</sup> 로스에 따르면 직관은 칸트가 말하는 감각 인상이나 감각이 아니라 그것과 개념 사이에 있는 “상”(Bild) 혹은 “도식”(Schema)과도 같은 것이다.<sup>8)</sup> 그것은 “모든 종합의 형태들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모든 형태의 종합은 그 형태가 다를지라도 그 근저를 관통하는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sup>9)</sup> 말하자면 범주는 그것을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시적 형태의 개념적 내용으로서 갖지만, “개별 의미”는 보편적이지 않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개념적 형태로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별 의미를 주어로 갖는 개별 판단은 아직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독특한 의미의 판단이다. 개별 판단은 범주가 직관에 적용되어 인식을 형성하는 판단과는 달리 그러한 판단에 대상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로스가 개별 의미와 개별 판단을 도입하는 이유는 아마도 감각 인상들은 그 자체 어떤 통일성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을 지시할 수는 없고,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직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직관은 통일되어야 하는데, 로스에 따르면 이 통일은 범주가 아닌 **직관** 자신 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칸트에 따르면 직관의 잡다를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객체를 형성시키는 작용은 **사고** 작용이며, 사고

6) P. Rohs(2001), 217.

7) P. Rohs(2001), 225.

8) P. Rohs(2001), 223.

9) P. Rohs(2001), 225. 여기서 모든 형태의 종합이란 감성에 있어서의 직관적 종합과 오성에 있어서의 종합을 말한다.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로스는 후자뿐만 아니라 전자의 종합 역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는 **오성**의 몫이다. “사고란 개념에 의한 인식”(A69/B94)이기 때문에, 사고를 통한 직관의 잡다의 결합은 직관이 아닌 **개념**의 몫이다. 하지만 로스는 “개념들이 ‘결합’하지만 모든 결합이 개념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sup>10)</sup>라고 주장하면서, **직관에 의한 종합**도 가능함을 주장한다. 그는 “단 하나의 종합”만이 있다는 호페의 주장<sup>11)</sup>에 반대하면서, 칸트가 라이프니츠에 반대하여 직관과 개념을 정도의 차이만을 갖는 하나의 인식이 아니라 두 개의 완전히 상이한 인식으로 보았듯이 종합도 직관과 개념에 상응하는 두 가지 종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는 감각의 작용에 의한 인상의 수용 이외에도 인상들을 상(Bild)으로 종합하는 상상력의 종합이 있어야 이 상 혹은 개별 의미에 개념이 **일차적으로** - 즉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시적이지 않은 형태로 - 관계하는 개별판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같이 “인상들을 상으로 종합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상상력의 일이라고 하면서 **상상력을 직관의 능력에 귀속**시킨다.<sup>12)</sup>

칸트는 종합을 초판에서는 직관에서의 포착의 종합, 상상력에서의 재생의 종합, 개념에서의 재인의 종합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재판에서는 형상적 종합(*synthesis speciosa*)과 지성적 종합(*synthesis intellectualis*)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로스는 초판에서의 앞의 두 가지 종합과 재판에서의 형상적 종합을 “직관적” 종합이라고 칭하면서 직관에 귀속시킨다.<sup>13)</sup> 이로써 로스는 상상력을 오성이 아닌 직관에 귀속시키는데, 이는 “상상력의 종합은 [...] 항상 감성적”(A124)이라거나 “상상력은 [...] **감성**에 속한다”(B151)는 칸트의 명시적인 언급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칸트는 다른 한편으로 “상상력의 종합이 **자발성**의 실행인 한 [...] **규정적**”이며 “직관의 대상에 대한 **오성**의 최초의 적용”이라고 말하면서 내용적으로 상상력을 오성에 귀속시킨다. (B151) (강조는 모두 나의 것) “상상력은 지성적 종합의 통일 작용에서는 오성에 의존하며, 포착의 잡다의 면에서는 잡다에 의존한다”(B164)는 언급에서 보듯이 칸트는 상상력과 관련하여 애매한 입장을

10) P. Rohs(2001), 215.

11) H. Hoppe(1998), 167.

12) P. Rohs(2001), 221.

13) P. Rohs(2001), 220.



취하고 있다. 이것은 칸트가 “마음의 **두 원천**”을 “인상들의 수용성”과 “개념들의 자발성” 혹은 “직관”과 “개념”이라고 구별한 뒤(A50/B74), “내용 없는 사상들은 공허하고, 개념들 없는 직관들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양자가 “통일되어야만 인식이 생길 수 있다”(A51/B75f.)고 말하면서도, 양자를 통일시키는 과정에서는 상상력을 끌어들여 “**세 인식 원천**”(A115)을 구별하는 애매함에 기인한다.<sup>14)</sup>

로스는 개념의 매개 없이 직관이 직접 대상에 관계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관철하기 위해 상상력을 직관에 귀속시키고 상상력의 종합을 “**직관적 종합**”이라고 칭한다. 그에 따르면 직관이 직접 대상에 관계하는 것은 “상상력이 감각인상들을 상으로 결합”하는 “**상 형성**” 작업에 기초하며, “**상 형성**”을 위해 “**직관적 자발성**”이 요구된다.<sup>15)</sup> 그런데 **직관이 자발적**이라는 로스의 주장은 감성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이라는 칸트의 구별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로스는 칸트가 재관의 연역에서 모든 결합은 오성의 행위라고 하면서 자발성을 오성의 행위와 일치시키고 직관적 자발성을 배제한 점, 상상력의 초월론적 종합이 “**오성의 감성에 대한 작용**”(B152; 강조는 나의 것)이라고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 (B153)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는 개념의 어떠한 적용도 포함하지 않은 채 감각 인상들을 하나의 상으로 결합하는 상상력의 종합으로서의 **직관적 종합**이 가능함을 주장하면서, 칸트가 자발성을 오성의 행위와 일치시킨 것은 잘 못이라고 말한다.<sup>16)</sup> 이로써 로스는 개념으로부터 독립한 직관의 종합을 주장하는데, **직관**은 단순한 감각 인상이 아니라 직관에 속하는 상상력에 의해 형성된 상으로서 **개념**과 **대상**을 연결하는 **중간자**로서 개별 의미이다. 이 때 **대상**은 로스에 따르면 사물 자체가 아니라 “경험적 대상”이며 “감각기관”에 인상을 제공하는 **원인**이다.<sup>17)</sup> 따라서 직관은 이 대상과 인과관계에 있을 뿐만

14) 강조는 나의 것; “세 인식 원천”은 “감각기능, 상상력 그리고 통각이다”. (A115) 칸트는 이것들을 B129 주에서는 경험의 “세 근원적 원천”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A79/B104에서는 “직관의 잡다”, “상상력에 의한 잡다의 종합” 그리고 “개념” 내지 “오성”의 통일을 인식의 세 단계로 서술하고 있다.

15) P. Rohs(2001), 222. 강조는 나의 것.

16) P. Rohs(2001), 222, 223.

17) P. Rohs(2001), 227.

아니라, 감각인상들을 종합하면서 개별 의미로서 이 대상을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 관계가 성립될 때만 **대상**은 개별 의미로서의 **직관**을 매개로 이 직관을 포섭하는 **개념**과 관계 맺게 된다. 이로써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직관의 대상연관성이 독립적으로 확보되고, 그 위에서 직관을 매개로 한 개념의 **간접적** 대상연관성이 설명된다.

## 2. 비개념적 직관으로서 감각자료

직관의 개념 독립적인 대상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는 개념과 대상 사이에 아직 개념적 내용을 지니지 않는 개별 의미와 아직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개별 판단과 같은 중간자를 상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자가 갖는 프레게의 의미와의 유비관계는 명확치 않으며, 오성의 자발성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을 상상력의 종합을 직관의 영역에 귀속시키는 독특한 시도는 논쟁에 부쳐질 수 있다. 개념과 직관의 확고한 이분법 속에서 직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모델인 감각자료 이론(theory of sense-data)은 이 이론의 대표자인 러셀(B. Russell)이 프레게의 의미를 심리주의적 잔재로서 제거해 버렸듯이 로스와 같이 중간자를 설정하지 않고, **직관**과 **개념**의 이항관계를 **감각자료**와 **경험적 지식**의 관계로 해석한다. 감각자료 이론은 사실상 칸트의 이론과는 거리가 먼 이론이다. 하지만 범주에 대한 직관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하나의 가능한 해석을 생각한다면, 감각자료 이론을 그러한 부류의 해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감각자료 이론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감각자료 이론을 총정리한 쉘라스의 논의에 기대어 칸트의 직관과 개념의 관계 문제에 상응할 수 있는 내용만을 부각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각자료 이론을 “소여의 신화”(myth of the given)라고 비판하면서 이와 대립되는 자신의 고유한 칸트 해석을 제시하는 쉘라스의 논의를 다루게 될 다음 단계로의 자연스런 이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직관은 직접적으로 대상에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처럼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다. 감각자료 이론은 감각자료(sense-data)가 직

관과 같은 **개별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별자에 대한 감각은 지식으로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식은 보편적 개념을 매개로 한 **판단**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각자료 이론은 “감각자료가 개별자”라고 하면서도 감각자료를 “감각하는 것”은 “인식”(knowing)이라고 주장한다.<sup>18)</sup> 러셀은 “알다”(know)의 두 가지 의미로서 “판단”에 적용되는 의미의 인식과 “직접대면에 의한 인식”(acquaintance)을 구별하면서, 전자를 독일어의 wisse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술구에 의한 지식(knowledge by description)에, 후자를 독일어의 kenne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접대면에 의한 지식(knowledge by acquaintance)에 대응시킨다.<sup>19)</sup> 셀라스는 ‘직접대면에 의한 지’라는 메타포로 표현되는 “감각 내용의 지각됨”을 “오직 약정된(stipulated) 의미에서만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sup>20)</sup> 직접대면에 의한 인식, 즉 감각자료의 인식에서 감각내용은 비개념적으로 -명미철학의 용어로는 비추론적으로(non-inferential)- 특정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감각되며, 감각자료가 이런 방식으로 **감각된다**는 것은 그것이 **알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적 의미에서 감각행위는 지식이라고 감각자료 이론은 주장한다.

감각자료 이론은 **감각을 사유**와 동종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감각을 지향적 사유와 같이 내적이며 인식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각소여를 감각하는 것은 내적인 비추론적인 인식적 사실이다. 감각자료는 직접적으로 알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하는 분자와 같은 이론적 대상이 아니다. 이론적 대상은 직접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각자료가 직접적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감각자료를 알기 위해 우리가 사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위해 필요로 하는 능력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감각자료를 감각하는 비추론적 인식을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획득될 필요가 없다. 셀라스에 따르면 감각자료 이론은 (1)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 특정한 **내적 과정**이 있다는 생각과 (2) 이러한 내적 과정은 **비추론적** 지식이며, 다른 모든 경험적 지식에

---

18) W. Sellars(1991), 129.

19) B. Russell(2007), 80f.

20) W. Sellars(1991), 129f.

**토대**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결합한 결과이다.<sup>21)</sup>

감각자료 이론은 이중의 토대 관계를 갖는다. 우선 감각자료는 단순한 개별자로서 **비인식적**인 것이다. 그것을 감각하는 것은 **비추론적 인식**이다. 이 비추론적인 인식은 다른 모든 **경험적 인식**에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감각자료 이론에 따르자면 한편으로 인식은 비인식적인 것에 기초하며 그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말하자면 비인식적인 것이 인식의 토대가 된다. 다른 한편 감각자료를 감각하는 비추론적 인식은 추론적인 인식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후자는 전자로 환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인식적인 것과 비추론적 인식이 추론적 경험인식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전자가 후자에 **내용적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이다. 전자가 칸트의 직관에, 후자가 개념에 상응한다면, 감각자료 이론은 직관이 개념에 **선행**하고 독립적이며 개념적 지식의 내용에 제한을 가한다는 **직관 중심적 토대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 Ⅲ. 이차적 현상: 직관과 범주의 통일로서의 현상

#### 1. 직관에 대한 셀라스의 개념주의적 해석

로스는 감각자료 이론처럼 직관이 개념에 내용적 제한을 가한다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자는 모두 직관이 흩어진 감각인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념에 선행해서 비록 아직 개념적, 추론적 인식 내용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인 상이나 비추론적인 형태의 인식을 형성한다고 본다. 로스가 말하는 개별 의미로서의 상이나 감각자료 이론의 비추론적 인식은 아직 개념적이지 않은 인식으로서 **개별적**인 것을 지시한다. 그래서 로스가 “직관의 개별적 대상연관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시대명사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sup>22)</sup> 감각자료 이론은 직관을 논리적 고유

21) W. Sellars(1991), 140 참조.

22) P. Rohs(2001), 219.

명사인 ‘이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감각자료로 간주한다. 직관이 ‘이것’으로 지시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직관을 개념적 판단을 결여한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이 개별적인 것이 개념적 판단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직관과 개념의 **이분법적** 구별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셀라스는 칸트의 “직관”을 “적어도 특정한 맥락에서는, 넓지만 정당한 의미에서 개념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면서,<sup>23)</sup> 앞의 두 이론과는 달리 직관이 전적으로 개념에 독립적일 수 없음을 주장한다.

셀라스에 따르면 직관은 ‘이것’으로 지시될 수 있는 개별자가 아니다. 그는 칸트를 따라 직관을 개별자의 표상이라고 하지만, 개별자에 대한 **개념적** 표상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직관은 ‘이것’(this)이라는 **순수한 지시사**의 지시물이 아니라 ‘**이 그러한 종류의 것**’(this such)이라는 **구의** 지시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셀라스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구성하는 분자와 같은 추상적인 수준의 감각인상을 직관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되는 것은 특별한 **종의 사례**로서의 대상이다.<sup>24)</sup> 따라서 직관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집합에 속하는 대상으로서 **집합적**이라는 의미에서 **개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셀라스는 “직관”을 “개별자에 대한 **개념적** 표상의 특별한 하위 집합”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은 “보편 개념에 선행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보편 개념을 포함한다”고 말한다.<sup>25)</sup> 말하자면 직관은 명백히 비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의 하위 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은 “생산적 상상력에 의해 종합된 것”으로서, 가령 “이 사각형”이라는 **구의 형태**를 갖는다.<sup>26)</sup> 이 구는 아직 판단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각형이다”라는 **판단**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다. 이 구와 판단은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 사각형”이라는 형식의 표상으로부터 “이것은 하나의 사각형이다”라는 “동일한 구문(nexus)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명제 형식”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이로써 셀라스는 **구의 형식**을

23) W. Sellars(1968), 3.

24) Kant에게서 직관(Anschauung)이라는 용어는 직관함과 직관됨, 즉 직관하는 작용과 직관된 대상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5) W. Sellars(1968), 7.

26) 이하 W. Sellars(1968), 4f.

갖는 **직관**이 **판단**의 형식을 갖는 **개념적 인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논리적 연속성 속에서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행은 감각자료 이론에서 감각자료에 대한 감각(직관)으로부터 지각적 판단으로 이행하는 과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감각자료 이론에서는 비인식적인 감각자료와 그것을 감각하는 비추론적 지식이 경험적 지식의 **토대**가 되며 경험적 지식을 **내용적으로 제약**한다. 때문에 거꾸로 인식적 사실은 비인식적 사실로, 경험적 지식은 비추론적 지식으로 분석되어 환원될 수 있다. 하지만 셀라스는 이러한 생각을 **소여의 신화**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인식적 사실이 남김없이 비인식적 사실로 분석될 수 있다는 생각”은 “소위 윤리학에서 말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와도 같은 실수”이다.<sup>27)</sup> 왜냐하면 **인식적 규범성은 자연적 사실성**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감각자료 이론에서 감각자료를 감각하는 비추론적 인식은 관찰자에게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 특정한 **내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가령 ‘X는 존스에게 초록색으로 보인다(looks)’로 표현될 수 있다. 감각자료 이론은 이 문장을 통해 ‘존스는 X를 초록색으로 본다(see)’라는 문장을 설명한다. 후자의 문장은 전자와는 달리 ‘X는 초록이다(is)’라는 문장을 함축한다. 감각자료 이론은 look 문장을 see 문장으로 설명하고 거기서 is 문장을 도출한다. 하지만 첫 번째 look 문장은 ‘X는 존스에게 단지 초록색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분명히 알려지듯이 단지 그렇게 보일 뿐 사실상 X는 초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축할 수 있다. 따라서 look 문장은 is 문장을 함축하지 않으며, 전자에서 후자를 도출하는 감각자료 이론의 시도는 잘못이다. 셀라스에 따르면 거꾸로 see 문장이 is 문장을 포함하므로, is 문장이 look 문장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며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28)</sup> 셀라스의 이러한 분석은 칸트가 ‘내가 한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무게의 압박을 느낀다(fühle)’고 말하는 것과 ‘그 물체는 무겁다(ist)’고 말하는 것을 구별하는 경우와 같다. (B142) 전자는 “통각의 경험적 통일”(B140) 혹은 “의식의 주관적 통일”(B139)로서 주관 의존적인 판단이며 『형이상학서

27) W. Sellars(1991),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131.

28) W. Sellars(1991), 145.

설』에서 말하는 지각판단과 같은 것이다. 반면 후자의 판단에서 **계사 ist**는 직관의 잡다를 통각의 통일로 가져감으로써 **필연적**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의식의 “객관적 통일”(B139)을 가능케 한다. 감각자료 이론에서 관찰자에게 개념을 전제함이 없이 특정한 내적 과정으로 전개되는 비추론적 인식이 추론적 인식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셸라스의 분석이 제시하는 논증이라면, 이것은 칸트의 직관이 일종의 비추론적 인식으로 해석되더라도 그것이 개념적 판단을 내용적으로 제약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직관이 경험적 지식에 내용적 제한을 가할 수 있으려면 직관은 **이미 개념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비개념적 직관으로부터 출발해서 개념적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설명하기 어렵다. 칸트에게서 직관은 비개념적이기 때문에 사고할 수 없고 잡다를 결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에서 출발하여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사고**를 통해 잡다를 **결합**해야 한다. 따라서 직관이 이미 개념적이어야 한다는 말도 직관에 이미 개념적인 내용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직관이 주어질 때 항상 개념이 매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셸라스에 따르면 구의 형식을 갖는 직관과 판단의 형식을 갖는 개념적 인식에 공통된 “구문은 순전한 수용성의 표상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립**되어 놓여진 것이다.”<sup>29)</sup> 이로써 셸라스는 직관의 종합에 이미 개념이 관여하고 있고, 그렇게 개념과 매개된 직관은 개념적 판단에 내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소여의 신화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다. 로스는 직관이 잡다를 종합하여 비록 아직 개념적 내용은 아니지만 개념과 **공통된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관과 개념이 공통된 내용을 갖는다면, 직관은 개념을 통한 인식에 **내용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로스가 말하는 직관이 감각자료 이론에서처럼 비개념적, 비추론적인 것이라면, 비개념적인 직관이 개념적 판단을 내용적으로 제약한다는 것은 감각자료 이론과 마찬가지로 소여의 신화에 떨어지게 된다. 비추론적 지식이 추론적 지식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소여의 신화에 빠져 있는 주장이다. 하나의 판단은 인식적 내용에 대해 논리적, **개념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만큼

29) W. Sellars(1968), 5. 강조는 나의 것.

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개념적 관계를 결여한 비추론적 지식은 추론적, 개념적 지식의 정당화에 기여할 수 없다.

직관이 이미 개념적이어야 한다는 셀라스의 주장은 감각자료 이론의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 기초한다. 그 중 하나는 논리적 원자론에 기초한 감각지의 **직접성**에 대한 감각자료 이론 비판이다. 감각자료 이론에 따르면 감각자료는 ‘이것’이라는 지시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시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적으로 주어진다**. 그것은 개별적이며 그에 대한 감각 역시 개별적인 것이어서 그때그때 파악되는 감각지들은 직접적인 것들로서 서로 독립적이다. 하지만 셀라스는 초록색과 같은 색깔의 경험도 직접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배경지식과 개념들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동일한 벡타이가 햇빛에는 파랗게 보이고 가계의 조명 아래서는 초록빛으로 보일 수 있다. 셀라스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지각적 소어에 대한 판단조차도 감각자료와 같은 **직접적인** 감각적 대면을 통해 근거지어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햇빛에 보이는 것을 표준적인 조건이라고 간주하고 표준 조건 하에서 벡타이는 초록색이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에는 이미 표준적 조건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초록색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식도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초록색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색깔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 중에서 초록색을 특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초록색이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다른 개념들과 독립적으로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sup>30)</sup> 감각자료 이론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비판을 통해서 셀라스는 직관을 개념적 지식을 근거 짓는 토대로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파악하는 감각자료 이론에 반대하면서, 거꾸로 직관을 **개념에 의해서 정립되고 근거지어진 것**으로서 해석한다.

하지만 셀라스는 칸트의 또 다른 직관에 대해서도 말한다. 두 직관의 구별이 애매하다고 하면서도, 셀라스는 “생산적 상상력에 의해 종합된” 직관, 즉 개념에 의해 매개된 직관 이외에 “순전한 수용성에 속하고 결코 개념적이지 않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개별 표상”으로서의 직관에 대해 언급한다.<sup>31)</sup> 이러한 종류의 직관은 칸트가 “감각 인상” 혹은 “질료”라고 부른

30) W. Sellars(1991), 147 참조.



것으로서(A86/B118, A120), 셀라스는 이것을 “맹목적인 사실”(brute fact)이며 “지각적 경험의 제약적 요소”라고 규정한다. 말하자면 **순전한 수용성**에 의해 이러한 맹목적 사실로서의 직관이 제공되어야 사유는 지각적인 경험으로 된다. 이러한 직관은 “독립적 실재”라는 “초월적 근거”를 요청한다. 직관은 이 “독립적 실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기초해 있는 것”이며, 이 독립적 실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요청되는 것”이다.<sup>32)</sup> 이로써 셀라스는 개념적 정당화의 영역 밖에 있는 직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셀라스는 개념적 정당화의 영역의 밖에 **자연과학**에 의해 탐구되는 **인과의 영역**을 설정한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적 규범성의 영역 밖에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셀라스의 주장은 맥다웰이 보기에 셀라스 자신이 비판한 소여의 신화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다. 맥다웰은 제거 불가능한 비개념적 요소가 지각 경험 속에 들어 있다는 생각을 비판하면서, 개념이 맹목적인 질료까지도 관통하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경험 개념을 제시한다.

## 2. 맥다웰에 의한 심화

감각자료 이론과 같은 토대론에 대한 비판은 셀라스 뿐만 아니라 영미철학 전체의 커다란 흐름이다. 하지만 맥다웰이 보기에 토대론을 부정하고 내재적 정합론을 취하는 데이빗슨의 이론은 “허공 속에서 마찰 없는 공회전”(frictionless spinning in a void)을 하고 있다.<sup>33)</sup> 맥다웰은 감각자료 이론과 같은 **토대론**이 갖는 소여의 신화와 데이빗슨의 내재적 **정합론**이 갖는 공허함을 피하면서 마음이 세계에 닿을 수 있다는 주장을 최소 경험주의의 형태로 제시한다. 그는 이러한 작업을 칸트의 직관과 개념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기초해서 수행한다. 맥다웰에 따르면 데이빗슨의 내재적 정합론은 개념의 영역을 “직관”과, 즉 “경험의 입력”과 연결되지 않은 개념들의 그물

31) W. Sellars(1968), 7.

32) W. Sellars(1968), 9.

33) J. McDowell(1996), 66.

망으로 간주하면서, 직관과 개별의 단절을 주장한다.<sup>34)</sup> 말하자면 데이빗슨에게서 **직관**은 비개념적 자연으로서 개념의 영역에 **인과적** 제약만을 가할 뿐이어서, 직관은 개념의 원인이라는 사실만이 말해질 뿐 양자의 인식적인 관계는 규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인식론의 영역인 **개념**의 영역은 단지 이 원초적인 인과적 자극에 대한 **해석**의 공간이 될 뿐이다. 여기서 개념적 판단은 다른 판단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며, 외부로부터의 인과적 자극일 뿐인 직관은 정당화의 공간 밖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개념의 자발성을 강조한 나머지 내재적인 폐쇄성에 빠져 외부로부터의 제약을 잃기 쉽다.

내재적 폐쇄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개념의 영역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인식론적으로 제약되면서도 경험적 정당화는 개념의 영역에 의존한다는 “이원론”이 제기된다.<sup>35)</sup> 하지만 맥다월은 정당화의 영역이 개념의 영역보다 넓다는, 즉 비개념적 외부 자극이 개념에 속하지 않으면서 정당화를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이원론의 주장을 소여의 신화라고 비판한다. 이원론에 의해 확장된 정당화의 공간은 사유의 영역 외부로부터의 비개념적 자극을 포함한다. 하지만 맥다월에 따르면 “우리는 한 판단이 어떻게 개념의 영역 밖에서 근거 지어지는 지를 이해할 수 없다.”<sup>36)</sup> 따라서 정당화의 공간을 개념의 공간을 넘어 확장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맥다월의 주장은 정당화의 공간과 개념의 공간이 같다는 것, 즉 개념을 넘어서 있는 어떤 것도 인식적 규범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의 본래적인 정신은 개념과 직관의 공동 작업에 의해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맥다월에 따르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공동 작업에서 항상 직관의 작용에 개념이 수반되지, 직관이 거기서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sup>37)</sup> 맥다월은 이원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념이 “수용성의 비개념적 전달에 대해서(on)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능력은 수용성 **속에서(in)**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개념이 작용하기 이전에 감각 인상 자체 속

34) J. McDowell(1996), 4.

35) J. McDowell(1996), 6.

36) J. McDowell(1996), 7.

37) 이하 J. McDowell(1996), 9.

에 이미 개념적 내용이 소여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맥다월에 따르면 “우리의 개념적 능력은 우리가 재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즉 재료가 우리에게 도달될 때 이미 작동이 완료된다.”<sup>38)</sup> 맥다월은 이런 의미에서 칸트의 “직관”이 “비개념적 소여”가 아니라 “이미 개념적 내용을 가진 상태”라고 주장한다.<sup>39)</sup>

맥다월에 따르면 “직관”은 데이빗슨이 생각하듯이 단지 “사고에 대한 **인과적** 충격”으로서 간주되어선 안된다. 우리의 사고가 “경험적 내용”을 가지려면 “사고와 직관은 **이성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sup>40)</sup> 그렇기 때문에 맥다월은 “우리의 감각 인상(impression)이 이미 개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sup>41)</sup> 하지만 이것은 감각 인상에 개념적 내용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각 인상이 주어질 때 개념이 항상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로써 맥다월은 소여의 신화와 데이빗슨의 내재적 정합론을 피해서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맥다월의 입장은 최소 경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데이빗슨은 개념적 “도식”과 직관적 “내용”의 “이원론”을 “경험론의 마지막 도그마”라고 하면서, 그것이 “옹호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sup>42)</sup> 하지만 맥다월은 경험주의를 온전히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는 개념 외적인 직관을 상정하는 고전적 경험론처럼 소여의 신화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지만, 데이빗슨처럼 허공 속에서의 마찰 없는 공회전도 원치 않는다. 맥다월에게 직관은 개념의 밖에 있는 개념의 한계가 아니라 개념에 의해 관통되는 것이다. 이렇게 직관을 관통하는 개념은 **경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은 개념에 외적 제약으로서 작용함으로써 경험을 실재적인 것으로 만든다.

경험이 실재적이라는 맥다월의 주장은 칸트의 경험적 실재론을 따르는 것이다. 칸트의 시공간과 범주가 그렇듯이 맥다월의 인식은 경험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며, 실재하는 대상에 이른다. 이것은 칸트가 관념론 논박에서

38) J. McDowell(1996), 10.

39) J. McDowell(1996), 9.

40) J. McDowell(1996), 17. 강조는 나의 것

41) J. McDowell(1996), 18.

42) D. Davidson(2006), 201.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것이다. 칸트는 외부 세계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내적 현존재만을 확실한 것으로 주장하는 전통적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내적 현존재도 “내 밖의 사물들의 실존과 필연적으로 결합”(B276)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로써 그는 우리의 경험이 단지 꿈이나 상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실재 대상에 관계하는 것이라는 **경험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외부 세계는 한갓 나의 심적 표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실재이지만, 그것은 나의 인식 형식인 시공간과 범주에 의해 나에게 알려진다. 맥다웰은 이러한 칸트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이렇게 될 때 칸트의 물 자체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칸트와 같이 초월론적 대상을 상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험적 세계”를 그것의 “피안의 실재”인 초월론적 대상의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경험세계의 실재성**을 침식하기 때문이다.<sup>43)</sup> 말하자면 **사물 자체가 아닌** 현상은 현실로부터 물러나서 단지 우리의 심리적인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염려가 여전히 가능하다면, 그것은 칸트의 관념론 논박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맥다웰은 칸트에게서 초월론적 대상을 제거한 **경험적 실재론**을 물려받는다.

이제 맥다웰에게 **외부 대상**은 그때그때의 경험판단에 독립적인 실재이지만 **개념 영역**의 경계 안에 있다. 왜냐하면 직관과 개념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경험은 항상 이미 **개념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맥다웰은 세계가 이미 개념적으로 구조 지어져 있다는 형이상학적 언급을 하지 않고도, 수용성에 항상 이미 개념이 작용한다는 주장을 통해 경험을 세계의 구조에 열려 있는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오도되지만 앓는다면” 우리의 **경험판단**은 그대로 **세계**의 구조를 보여준다.<sup>44)</sup> 이런 의미에서 개념과 세계 사이에는 장막이 없다. 그때그때의 경험에서 개념은 직관과 결합하면서 세계의 이성적 연관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때 “반성이 요구”한다면 개념의 그물망은 “기꺼이 변형되어야 한다”.<sup>45)</sup> 이러한 직관과

43) J. McDowell(1996), 98.

44) J. McDowell(1996), 26.

45) J. McDowell(1996), 12f.

개념의 공동 작업에 의한 인식은 개념이 직관의 잡다를 수용하면서도 그것에 형상을 부여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때 사유는 사태의 필연성에 따라서 자신의 자발성을 형상으로 조직해나갈 것이다. 여기서 직관과 개념이 온전히 서로 삼투하여서 사태의 필연성은 사유의 자발성과 합치하기 때문에, 개념의 바깥에 남는 직관의 맹목적 필연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맥다월에게는 오직 이차적인 현상, 즉 개념에 매개된 직관으로서의 현상만이 가능하지, 일차적 현상, 즉 개념 밖에 있는 직관으로서의 현상은 불가능하다.

#### IV. 맺는 말

나는 지금까지 칸트의 직관과 개념의 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일차적 현상과 이차적 현상의 구별 문제에 대한 해석들을 비개념주의적 해석과 개념주의적 해석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에서 서술하였다. 이 문제는 직관이 개념을 결여한 맹목적 감각인상인가 아니면 항상 이미 개념에 매개된 직관인가의 물음을 결정하기에 직관의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직관의 두 상태를 전자에서 후자로의 발생론적 진행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에서 후자로의 발생론적 진행은 심리학적인 것이고 인식론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특징을 드러내는 유의미한 체계적 문제이다.

만일 직관이 **맹목적** 감각 인상에 불과한 것이라면, 데이빗슨이 생각하듯이 직관은 개념과 **인과적** 연관관계만을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빌라첵이 주장하듯이 직관이 직접 대상에 관계한다는 의미도 직관의 대상에 대한 **인과적** 연관관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sup>46)</sup> 하지만 로스는 빌라첵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면서 **지향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직관의 지시적 대상연관을 주장한다. 직관이 지향적으로, 즉 인식적으로 대상에 관계하기 위해서, 직

46) Willaschek(1997), 560

관은 “마음 안에서 그 자체로는 흩어져 날날으로 마주쳐지는” 감각 인상으로 머물러서는 안되며, **직관적 종합**에 의해 상 내지 개별 의미로서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의미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념과 관계해야 하기 때문에, 로스는 개별 의미와 개념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공통적인 것**을 상정한다. 로스는 칸트의 정신에 따라 개념으로부터 독립된 인식 원천으로서 직관을 확보하려고 직관의 종합에 의한 개별 의미를 주장하지만, 감각자료 이론과는 달리 개별 의미가 지식으로 성립하며 개념적 지식을 내용적으로 제약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데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개별 의미의 종합과 개념의 종합은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로스가 양자의 종합을 칸트가 말하는 상상력의 종합과 개념의 종합의 관계로서 생각한다면, 개별 의미라는 직관적 종합은 개념의 종합을 내용적으로 **준비**하고 개념적 내용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로스는 셸라스가 비판하는 감각자료 이론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칸트의 직관에 관한 로스와 감각자료 이론의 비개념주의적 해석은 직관을 이미 **종합된 것**이나 일종의 **인식**으로 보면서 개념적 인식의 **토대**로서 간주하는데, 이러한 시도를 셸라스는 소녀의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로스가 말하는 직관의 종합이나 감각자료 이론의 비추론적 인식은 개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 인식의 정당화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화란 개념적 영역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적 영역 밖에 있는 직관은 정당화와 무관하다. 따라서 직관을 이미 개념과 동일한 구문을 갖는 것으로 보고 **직관**에서 **개념**으로의 이행을 **구**에서 **문장**으로의 전개를 통해 설명하는 셸라스의 서술은 수미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양자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직관이 이미 개념적이라는 이같은 셸라스의 견해에 맥다월은 동조한다. 로스가 **대상**과 **직관**의 한자된 인과적 관계를 부정했듯이 맥다월은 직관이 개념과 인과적으로 연관될 뿐이라는 데이빗슨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직관**과 **개념**의 인식론적 연관을 주장한다. 이때 맥다월에게 직관은 로스가 생각하는 대상과 같은 것이다. 로스와 맥다월은 다 같이 대상과의 **인식론적** 연관을 맺기 위해 각기 직관 혹은 개념이 이미 잡다들을 **종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로스

는 **직관**에 맥다월은 **개념**에 잡다를 **종합**하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하지만 직관적 종합을 통해 인식론적 대상연관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의 비개념주의적 해석은 직관에서 개념으로의 발생적 과정을 통해 양자의 결합을 인식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개념적인 것이 개념적인 것을 근거 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맥다월의 개념주의적 해석은 직관이 수용될 때 항상 이미 개념이 작용하여 직관은 개념적인 것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미 **개념적인 직관이 개념적 인식**을 제약하는 발생적 과정이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발생론적으로 직관이 개념을 제약할 수밖에 없지만, 비개념주의적 해석처럼 직관에 이미 내용이 소여되어 있다고 하면 소여의 신화에 떨어지기 때문에, 개념주의적 해석처럼 본래 개념에 매개되어 있는 직관이 개념적 인식으로 명시화된다고 할 때만 직관에서 개념으로의 발생적 과정은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일차적 현상, 범주의 매개 없는 직접적 현상으로서의 직관을 확립하는 것은 직관과 범주라는 두 가지 상이한 인식원천으로부터 출발해서 양자의 결합을 통해 인식을 설명하려는 칸트의 철학적 과제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직관에 대한 비개념주의적 해석은 개념으로부터 독립된 직관을, 그럼으로써 서로 독립된 두 가지 인식 원천을 확보하고자 하는 칸트의 출발점에 충실하고자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칸트 자신이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차적 현상, 즉 직관과 범주의 통일로서의 현상만이 가능하며 범주의 매개 없는 직관의 현상 내지 대상연관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로 접근해가는 것 같다. 말하자면 양자의 결합을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비개념주의적 해석에서 개념주의적 해석으로의 중심 이동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가장 일관되게 정당한 해석은 맥다월의 것이다. 셀라스는 개념적 직관의 밖에 여전히 남아 있는 맹목적 감각 인상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맹목적 감각 인상이 어떤 방식으로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는지는 인식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맹목적 감각 인상은 빌라쉴이 주장하듯 대상과 인과적 연관만을 가질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는 감각 인상의 원인이 대상이라는 것만이 가정될 뿐 양자의 인식론적 연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감각 인상은 인식론적 논의의 밖에 놓이게 된다. 마음에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현상은 항상 통일된 의식에 의해 포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직 한 가지의 종합만이 있다면,<sup>47)</sup> 오직 한 가지의 현상만이 있다. 왜냐하면 종합되지 않은 것은 현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직관의 잡다가 결합되어 현상한다는 것은 그림으로써 대상이 형성되어 대상연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직관을 결합하는 “사고란 주어진 직관을 대상과 관계시키는 활동”(A247/B304)이라는 칸트의 언급에 근거해 볼 때, 로스처럼 개념의 종합과 구별되는 직관의 종합을 통해 대상을 지시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맥다월처럼 개념에 의한 직관의 잡다의 종합이 곧 대상의 현상이고, 이를 통해 대상연관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바로 칸트 자신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맹목적 감각 인상에 대한 언급도 오직 하나의 종합에 대한 언급도 모두 칸트 자신의 것이다. 개념주의적 해석을 따르면 개념에 의해 결합되지 않은 맹목적 감각 인상에 대한 언급을 무시해야 하며, 비개념주의적 해석을 시도하면 소녀의 신화에 빠져 직관과 개념의 인식론적 연관을 해명할 수 없다. 나의 생각에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개념주의적 해석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맹목적 감각 인상은 그 자체 **실제로는** 의식에 현상할 수는 없지만 **명목상으로** 종합의 전제로서 가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정합적으로 보이는 칸트의 서술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항상 이미 개념에 의해 매개된 직관이라는 해석이 칸트의 정신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이 재판의 전반적인 논조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서두에 문제로서 제기한 인용에서 보듯이, 칸트는 이미 초판에서도 개념주의적 해석을 위한 단초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 (위 I장의 A248, 122, 125, 107의 인용 참조) 하지만 재판의 연역은 직관과 개념의 결합 문제와 관련하여 개념주의적 해석이 명백히 강화되는 칸트의 사상적 변화를 보여준다. 벤첼은 로스에 반대하여 맥다월의 해석을 따르면서 칸트의 본래적 관심사는 직관으로부터 개념으로의 연역이 보여주는 경험적 계보학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부터 직관으로의 연역이 보

47) “한 판단에서 서로 다른 표상들에게 통일성을 부여하는 동일한 기능이, 곧 또한 한 직관에서의 여러 표상들의 순전한 종합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A79/B104f.)



여주는 논리적인 것이었다고 역설한다.<sup>48)</sup> 이러한 해석의 정점에 있는 맥다웰의 생각은 칸트에 대한 헤겔적 독해다. 본 논문의 서술의 흐름이 보여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칸트의 사상의 헤겔적인 방향으로의 진행이며, 칸트에서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고전철학의 사상적 전개를 암시하는 것이다. 칸트의 사상의 헤겔의 사상으로의 진행은 그것의 수미일관한 발전이며, 헤겔이 자신의 논리적 고안을 통해 칸트의 사상적 단초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사실은 본 논문의 논의에 대한 흥미로운 보충이 될 것이지만 후속 논문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sup>49)</sup>

투 고 일: 2016. 01. 11  
 심사완료일: 2016. 02. 20  
 게재확정일: 2016. 02. 21

**강순전**  
 명지대학교 철학과

48) Wenzel(2005), 424.

49) Soon Jeon Kang, "Kants intuitiver Verstand und Hegels Begriff des Begriffs", *Kant-Studien* 근간.

## 참고문헌

- Davidson, D.(2006), “On the very idea of a conceptual scheme”, in: *The Essential Davids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Hegel, G.,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I, Theorie Werkausgabe, Werke in zwanzig Bänden, Bd. 10*, Frankfurt a. M., 1969ff.
- Hoppe, H.(1998), “Die transzendente Deduktion in der ersten Auflage”, in: *Kant—“Kritik der reinen Vernunft”*, hg. v. G. Mohr . u. a. Berlin.
- Kang, Soon Jeon, “Kants intuitiver Verstand und Hegels Begriff des Begriffs”, *Kant-Studien* 근간.
-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1998. (백종현, 『순수이성비판』, 아카넷, 2013)
- Kant, I.,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AA 04. Berlin 1900ff.
- Kant, I., *Logik*, AA. Berlin 1900ff., Bd.9.
- McDowell, J.(1996), *Mind and World. With a New Introdu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aton, H. J.(1936), *Kant's Metaphysic of Experience. A Commentary on the First Half of the Kritik der reinen Vernunft*. Vol. 1. London.
- Rohs, P.(2001), “Bezieht sich nach Kant die Anschauung unmittelbar auf Gegenstände?”, in: *Kant und die Berliner Aufklärung*. Akten des IX. Internationalen Kant-Kongresses. Bd.2. Hg .v. V. Gerhardt u. a .Berlin.
- Russell, B.(2007), 『철학의 문제들』, 박영태 역, 이학사.
- Sellars, W.(1968), *Science and Metaphysics. Variations on Kantian Themes*. London.
- Sellars, W.(1991),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in: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Ridgeview Publishing Company, 1991

- Wenzel, Christian H.(2005), “Spielen nach Kant die Kategorien schon bei der Wahrnehmung eine Rolle?“. In: *Kant-Studien* 96. 4.
- Willaschek, M.(1997), “Der transzendente Idealismus und die Idealität von Raum und Zeit”, in: *Zeitschrift für philosophischen Forschung*, 51.

ABSTRACT

## The Problem of Distinc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Appearance

Kang, Soon-Jeon

We call the first appearance the intuition, which is immediately given without contact with categories, and the second appearance the intuition, which is determined by categories. The first and second appearance are characterized by the relation of intuition and categories or concepts, which is mentioned by Kant inconsistently. For this reason the opposing interpretations of it are suggested. One of them maintains that the intuition is able to appear without concepts, but the other interpretation argues that the intuition has already been determined by categories. To the former belong the interpretation by P. Rohs and the theory of sense-data, to the latter the interpretation by W. Sellars and J. McDowell. According to interpretations of the first class the first appearance is not only possible, but also works as the basis of the second appearance. The interpretations of the second class maintain, however, that only the second appearance is possible, accusing the interpretations of the first class of falling into the “myth of the given”. I analyse both sides of argumentations and evaluate which position gets more closer to the original thought of Kant.

**Keywords:** Kant, intuition, category, concept, appearance